

교계 노숙자 대책 '급하다'

복지관·보현의 집 등 14곳 490명 수용

재정부담·자활프로 개발 등 걱정 태산

최근 노숙자가 다시 늘기 시작한 가운데 교계 노숙자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운영 여건 및 프로그램 활용 등 전반적인 상황이 노숙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3년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장 물가가 오를 겨울을 보낼 일도 걱정스럽다.

현재 교계의 노숙자 시설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용산·종로·부산 등 4곳 보현의 집 4곳을 비롯해 경복궁의 아침을 여는 집, 우리는 선우의 화엄동산 등 6곳과 구로·길음·농인·본동·삼전·자양·옥수·청담 등 복지관 8곳을 합해 모두 14곳으로, 490여명의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노숙자 3500여명의 14%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 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보현의 집 4곳은 구두수선, 농산물판매 등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도 낮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업무도 못내고 있다.

자활의지를 잃은 만성체류자에 대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를 초빙한 심성교육 및 정보제공, 법사초청 범죄 등이 필요하지만 난방비 대가에도 박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 당장 올 겨울이 걱정이다. 기름값과 전기세, 물가 등이 올라 난방비와 김장, 겨울생활용품 구입 등 재정부담이 작년과 비교해 최소 20~30% 가증됐기 때



사설 납골시설 64% 불교계 운영

조계종 복지재단 조사

전국의 불교계 납골시설은 모두 36곳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사설 납골시설(56개소) 가운데 불교계 납골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9~10월 두 달간 걸쳐 실시한 조사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 놓은 '불교계 납골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불교계 납골시설에 대한 공식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불교계 납골시설은 26개소이고, 공사중인 시설 9개소, 공사준비중에 있는 시설 1개소 등 모두 36곳이다. 이중 납골당은 능인선원·장안사 등 19개소, 납골당은 태고종공제회·굴월사 등 12개소, 영탑은 한마음선원 광명선원 등 4

개소, 납골묘는 보현원 양평공원 1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5개 시설이 5000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규모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8개소, 경남 7개소, 충북 3개소, 경북 2개소였으며,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남, 제주 지역이 각 1개소로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었다. 또 운영주체 종단별로는 조계종이 16개소, 태고종 8개소, 법화종 3개소, 선학원 2개소, 법통종·불일종·금강선원 1개소, 기타 4개소로 나타났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주한외국인 불교체형

"사찰에서 차를 마시고 참선을 해보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한외국인, 유림상공회의소 직원, 서울국제부인회, 독일부인회, 재한 외국인교수 등 43명이 11일 조계사에서 참선과 다도를 체험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지도법사 무심스님(회계사 국제선원 지도법사)은 "마음을 닦는 일은 곧 즐거움"이라며 참선에 대해 강의했다.

한영우 기자

문이다. 시설의 한 관계자는 "돈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죠"라며 열악한 분위기를 전했다.

영등포 보현의 집 이영훈 복지사도 "돈이 없어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숙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모금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노숙자 시설을 정규 복지시설로 인정해 지원금을 늘리고, 노숙자들이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취업유무나 사회교육 등 시설별로 특성화해 노숙자를 선별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티베트 난민촌 봉사

가족아카데미아

티베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네팔로 이주해와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살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의약품봉사가 펼쳐진다.

가족아카데미아(회장 이근후, 이하의대 교수)는 내년 1월 20일부터 10박 11일간 네팔의 티베트 난민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네팔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은 대략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시로 집을 짓고 주위의 산간을 일구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 및 약품이 부족하여 영양실조 등은 병으로 여겨지 않을 정도로 난민들의 의료현실은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가족아카데미아는 티베트 난민촌과 네팔간길 협회에 전달할 비타민과 항생제 구입을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구와 1만원. (02) 760-5138. 김원우 기자

전, 부처님 78대손 지칭,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내세우며 선원해체를 주장해왔다. <본지 제252호 23면 기사 참조>

삼원선원측은 "탈퇴한 신도들이 시주금과 불사금까지 모두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및 기존신도의 탈퇴 등으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삼원선원 관련 '무혐의'

삼원선원 대책위원회가 문제삼은 삼원선원측을 상대로 제소한 먹는물 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건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무혐의'로 기각됐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의정부지검에 부처님 78대손 지칭 등 5건도 함께 제소했으나 불기소됐다.

삼원선원 대책위는 99년 12월부터 원장 개인명의 토지소유권 이

특전사항

- 상과과정은 이수한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도염불법사 수여

문의: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5~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국영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사찰·단체 종사자 '보험 사각지대'

사찰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은 거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바로세우기재단(상임대표 박광서)이 지난 10월 한달간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서울지역 주요사찰과 불교단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가입), 산해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구본사 중에서는 조계사만이 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외에는 일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찰 중에는 능인선원이 모두 가입했으며, 봉은사는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단체 중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우리선우회가 모두 가입했으며, 재가연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실천승가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중앙선도회, 대불정, 불교상당개발원 등 기타단체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김재경 기자

ARS 모금전화도 개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이 13일 경주시로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했다. 운영은 11교구본사 불국사에서 맡게 되며, 각종 기자재가 갖춰지는 내년 1월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경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연건평 756평에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실, 사회교육원,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5400여명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불국사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

사찰환경문제 토론회

'지리산살리기'·'담백지화추진' 불교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23일 오후 2시 조계사 회의실에서 '사찰의 환경문제를 생각한다-한국 불교의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환경운동가 초청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민 밀양산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고통해탈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직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1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 교육장소	동산불당(안국동로타리)
3. 개강일시	2000년 12월 13일(수)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이미타정토대학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을 신봉하는 정도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연불만일회에서는 정도법사 3년과정의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 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3. 입학일시	2000년 12월 7일(목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연중집요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미타예참법 왕생론 인도정토사 중국정토사 한국정토사 반주삼매경 정토미술
5. 모집인원	정규반 30명 동산반 30명
6.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7.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8. 원서교부	2000년 11월 12 - 12월 7일 입학금 (150,000원)

※ 특전사항

- 상과과정은 이수한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도염불법사 수여

문의: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5~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국영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들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1. 인간의 고통해탈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상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조계사 신협 '파산선고'

24일까지 채권신고

조계사 신협이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계사 신협은 재산처분 등의 파산절차를 밟은 후 없어지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03억원 가량의 조합원 예금지급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조계사 신협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이명복(55)씨는 "대출금과 외 부금융기관 예치금, 건물임대 보증금 등 남아있는 신협자산을 현금화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 103억원에서 최소 4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구상권 청구 등 이사장의 책임범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계사측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강장사법당과 농지 등 신협 이사장 지

소님의 재산을 압류했다"며 "이달 말 예금보험공사의 부채심의회(책임소재와 범위)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의 책임한계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이번 파산선고와 함께 이달 24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는다. 최대 채권자는 신협 조합원의 예금을 대 지급한 예금보험공사가 되며, 예금명의를 있으나 소유가 불분명한 예금지급보유자들도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이